

삼성重, 누적수주 100억달러 돌파... 수익성 개선 속도낸다

상선 58억弗 수주... 연간목표 달성
LNG·FLNG 중심 경쟁력 강화
FDC 등 차세대 해양제품 개발

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과 부유식 액화천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FLNG)를 중심으로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과거 대규모 손실을 안겼던 해양플랜트 사업은 FLNG를 중심으로 다시 주력 수주원으로 부상했고, 고부가 값급 확대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올해 상선 34척, 58억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57억달러)를 102% 달성했다. FLNG 2기를 포함한 누적 수주는 102억달러로 전체 목표(139억달러)의 73%다. 국내

조선3사 중HD한국조선해양(180억8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해양플랜트에서는 독주가 두드러진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6월 코탈 2·텔핀 1호 FLNG를 잇달아 수주해 해양 부문에서만 44억달러를 확보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말 기준 1억1300만달러에 그쳤고, 한화오션은 대형 해양플랜트 신규 수주가 없다. 텔핀 2호기와 웨스턴 FLNG까지 추가 수주하면 오는 2030년까지 건조 물량을 확보할 전망이다.

과거 대규모 손실 이후 해양플랜트 수행 방식도 달라졌다. 삼성중공업은 익시스 부유식 해양가스처리설비(CPF)와 에지나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등 첫 대형 해양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에서 설계 물량 증가와 자재

발주·공정 지연으로 대규모 원가 손실을 냈다.

현재는 FLNG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생산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선체·화물창·주요 장비 사양을 표준화한 독자 모델 'MLF-N'을 개발하고 엔지니어링·조달·생산 데이터를 연계해 공정 관리도 체계화했다. 거제조선소에서는 FLNG 3기를 동시에 건조 중이다.

현재 경쟁사에 뒤처진 수익성도 내년부터 본격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중공업이 오는 2028년 2분기까지 상선 매출에서 LNG선 비중이 때 분기 50%를 웃돌 것으로 봤다. 조선 3사 중 유일하다. 2028년 인도 예정 LNG선 슬롯 23척을 모두 채웠고, FLNG 조기 인도 인센티브도 기대된다.

보수적인 한계지도 원화 강세 때 수익

성을 방어한다. 사실상 전액을 해지해 수주 당시 원화 수익성을 고정,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 변동을 줄인다.

삼성중공업은 차세대 해양 제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개념설계 인증(AiP)을 받은 데 이어 6월 캐피탈클린에너지캐리어스·로이드선급과 업무협약을 맺고 100MW급 FDC 설계 특허를 출원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특수선 사업 비중이 작아 방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고부가 가스선과 FLNG 중심의 견조한 수주 구조를 갖추고 원가 관리 역량도 높이면 중장기 실적 안정성은 더욱 탄탄해졌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metro



기아 스포티지·쏘렌토·카니발 블랙 에디션.

현대차·기아 SUV 스페셜 트림 확대

현대자동차·기아 가스포트유틸리티차(SUV)에 검은색을 입힌 스페셜 트림을 잇따라 선보이며 상품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기아는 27일 스포티지·쏘렌토·카니발 등 대표 레저용차량(RV) 3종에 '블랙 에디션'을 새롭게 추가하고 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외장에 다크 메탈과 블랙 유광 소재를 적용하고 전용 휠을 장착했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에 '블랙 링크' 트림을 추가했다. 현대차는 지난 25일 '2027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기반 프리미엄 스페셜 트림 블랙 링크를 새롭게 선보였다. 블랙 링크는 21인치 블랙 알루미늄 휠과 피델리티타이어, 프리뷰 전자제어 스펀션을 기본 적용하고 차량내·외장 전반에 블랙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기존 모델과 차별화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 '1100Hz·QD-OLED' 등 차세대 게이밍 기준 제시

게임스컴 2026

삼성전자 오디세이 신제품 등 공개
삼성D 연내 QD-OLED 양산 계획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차세대 게이밍 디스플레이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오는 30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6'에서 차세대 게이밍 모니터와 퀀텀닷(QD)-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게임스컴 현장에서 '#PlaySamsung: 게이밍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시대' 행사를 열고 2027년형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4종을 공개했다. ▲세계 최초 36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49형 '오디세이 OLED G9' ▲5세대 QD-OLED 펜타 탠덤 기반의 32형 '오디세이 OLED G8' ▲세계 최초 42형 커브드 OLE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OLED G7' ▲세계 최초 1100Hz 초고주사율을 구현한 27형 '오디세이 G6' 등이다.

'오디세이 OLED G9'은 32대 9 비율의



'게임스컴 2026' 캡콤 부스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QD-OLED를 탑재한 게이밍 모니터로 '프래그마타'를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 /삼성디스플레이

5세대 QD-OLED 펜타 탠덤 패널을 탑재하고 360Hz 주사율을 지원한다. 듀얼 모드에서는 듀얼 HD 해상도에서 720Hz까지 구현한다. '오디세이 OLED G8'은 게임 장르에 따라 4K·360Hz, QHD·520Hz, FHD·680Hz 등 세 가지 해상도와 주사율을 선택할 수 있는 '트리플 모드'를 지원한다.

42형 '오디세이 OLED G7'은 전작인 32형보다 디스플레이 면적을 약 72% 키웠으며 4K OLED 패널과 1000R 곡률

커브드 스크린을 적용했다. '오디세이 G6'는 QHD 해상도에서 600Hz를 지원하고 듀얼 모드에서는 HD 화질 기준 세계 최초로 1100Hz 초고주사율을 구현한다.

삼성전자는 무안경 3D와 'HDR10+ 게이밍' 생태계도 확대한다. 무안경 3D 모니터 '오디세이 3D'의 호환 게임을 올해 말까지 1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액티브비전 블리자드와 협업해 '몰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에 HDR10+ 게이밍 기술을 적

용했다. 해당 기술을 지원하는 게임은 2027년 상반기까지 2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캡콤, 크래프톤, CD 프로젝트 레드 등 글로벌 게임사와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각 게임사의 신작과 대표작을 약 180대의 QD-OLED 탑재 제품을 통해 선보이며 QD-OLED의 빠른 응답속도와 블랙 표현, 색 표현력 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e스포츠와 1인칭 슈팅(FPS) 시장을 겨냥한 24.5형 FHD QD-OLED도 연내 본격 양산한다. 24.5형은 화면 전체를 빠르게 파악하기 쉬운 순간적인 판단과 조작이 중요한 FPS와 e스포츠 시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크기다. 다수의 글로벌 PC 제조업체들도 이번 행사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24.5형 QD-OLED를 탑재한 신제품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양사는 각각 완제품과 패널 분야에서 게이밍 디스플레이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누적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금액 기준 17.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모비스, 스마트팩토리 신기술 공개

엠스피어 개최... 현장 적용기술 선포

제조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스스로 생각하고 통제하는 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고도화된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개발해 국내외 공장에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다양한 제조 신기술을 공개했다.

현대모비스는 경기 의왕연구소 인근 쿼텟센터에서 제조 기술 전시회 엠스피어(M-Sphere) 2026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도전을 넘어 가능성을 현실의 가치로'였으며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업계 관계자 1000여명이 방문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능형 자동화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요소기술 등 총

3개 분야에서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 중인 신기술 40여 종을 공개했다.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첨단 제조기술들이다.

지능형 자동화 부문은 현재 울산 새시 모듈 공장에 시범 적용 중인 '3D 비전시스템 활용 운송로봇시스템'이 주목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 새시모듈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부품을 로봇이 스스로 찾아 담고, 카메라로 이동 경로를 인식해 20kg에 달하는 부품들을 조립라인까지 운송해준다.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기반 로봇 티칭 솔루션을 선보였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에어백 제조 현장을 모사해 이 기술을 시연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이노텍, 아마존 자회사 카메라 모듈 공급

향후 수년간 죽스 로봇택시 탑재

LG이노텍이 미국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Zoox)에 로봇택시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 부품 공급을 확대하며 피지컬 인공지능(AI) 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LG이노텍은 '죽스(Zoox)'에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죽스는 아마존이 지난 2020년 인수한 자율주행 기술 기업으로, 전용 로봇택시를 개발해왔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에 로봇택시 제조 공장을 설립했으며라스베이거스에서 로봇택시 호출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LG이노텍은 죽스의 로봇택시 개발 조

기부터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향후 수년간 죽스의 차량에는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될 예정이다.

죽스의 로봇택시에 탑재되는 LG이노텍의 차량 카메라는 장착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화각을 갖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60도로 차량 전방위를 정밀하게 센싱한다.

이번 공급은 LG이노텍이 차량용 카메라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이번 공급을 계기로 죽스와 다년간 이어온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사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파라타항공

日·동남아 운항 집중

내년 상반기 미주 취항을 준비 중인 파라타항공이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A330-200을 일본과 동남아시아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파라타항공이 운용 중인 항공기는 A320-200 2대와 A330-200 3대 등 총 5대다. 이 가운데 A330이 전체 기단의 60%를 차지한다.

지난달 6일 신규 취항한 인천~삿포로 노선에는 260석 규모 A330-200을 투입해 매일 한 차례 운항하고 있다. 첫 운항편은 260석이 모두 차 탑승률 100%를 기록했다. 인천~도쿄 노선 일부 편에서도 A330을 활용하고 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